

분류	전도학- 전도자의 삶 실현(3)
제목	전도자의 삶 실현(3)- 전도자의 질문(3)- 좋은 일꾼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성경	사도행전 1:8
일시	2012년 1월 28일
장소	대구 하나교회
강사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주제어	

♣ 녹취 자료 ♣

♣ 서론

▶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교회에 좀 좋은 일꾼을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 특히 외국에 가면 많이 한다. 작은 교회도 많이 하곤 한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일꾼은 나쁜 일꾼입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고 답답해서 그러는 것이다.

▶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걸 어떻게 듣고 소화를 하셔야 하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주로 목회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훈련시켜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를 두 개 들어보겠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이해가 빨리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고, 한때에 어떤 사모님이 교인을 몰고 다녔다. 나쁘다 좋다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가만 놔두라고 하니 목사님들이 그걸 반대를 하고 욕을 하고 싸우고 그래서 시험도 많이 일어났다.

제가 얘기하자는 것은 그게 아니다. 왜 따라다니냐? 그게 중요하다. 왜 따라다니느냐 말이다. 도대체 뭘 하기에 그렇게 따라다니는지 그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또 한 예로 그 교회는 잘 하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얼마 전에 여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그 여 목사님이 최고라고 한다. 메시지는 류 목사님이 최고고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한다. 지금도 그런다. 다행스럽게 그 교회가 잘 하고 있다. 참 다행한 일이다. 제가 묻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말이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강서노회에서 반대하고 그랬다고 한다. 그러면 강서노회 목사님들이 왜 그런가를 못 봤다는 말이다. 그게 더 심각하다. 그래서 그 교회에 물어봤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다. 그 여 목사님이나 옛날에 사람을 몰고 다녔던 사모님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게 뭘지 아시는가? 매일 같이 만나서 매일 같이 도와주고 가르쳐준 것이다. 최고다. 틀렸다고 맞다는 신학을 안 했으니까 모르고, 일단 최고다. 매일 도와준 것이다. 항상 도와주는 것이다. 최고다.

♣ 성경 말씀(사도행전 1:8)

0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 교재 자료 ♣

1. 철저한 개인화 작업이 승리의 비밀입니다.

- (1) 행1:14
- (2) 행2:42
- (3) 롬16:1-27

2. 응답 받을 자의 교회 살리는 기도조 구성이 그 다음의 방법입니다.

- (1) 행2:42-47
- (2) 행6:1-7
- (3) 행9:1-43
- (4) 행28:30-31

3.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의 ONENESS가 흑암 이기는 길입니다.

- (1) 빌3:14-20, 21
- (2) 롬16:17-20
- (3) 골4:1-8

(The end)

1. 개인화

▶ 개인화가 시급하다. 철저한 개인화 작업이 승리의 비밀이다. 보통 안 되는 교회들을 보면 그게 안 된다. 거기다 우리 다락방은 또 바쁘다. 거기다 우리는 또 해외에 나가야 하니 못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사명을, 올바른 개인화를 할 교역자나 지도자를 심어야 한다.

(1) 행1:14
▶ 성경에 예를 들어보면 행1:14절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중 하나다.

(2) 행2:42
▶ 행2:42절도 그렇다.

(3) 롬16:1-27
▶ 특히 결론은 롬16장 인물들이다.
▶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게 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게 필요하다. 오히려 저 같으면 누가 매일 찾아오면 귀찮을 것이다. 그런데 영적문제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좋다. 그래서 완전히 제자가 되는 것이다. 또 병든 자일수록 더 그렇다. 내가 병이 들어서 아무 소망도 없이 있는데 누가 매일 와서 기도해줘보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올바른 개인화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개인화 시켜주는 것이 전도운동의 가장 큰 비밀이다. 그래서 너무나 무 답답하니까 그 죽은 목사님 교회의 부목사가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더라.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는데 자꾸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 물론 잘못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부목사보고 그런 얘기를 해줬다. 내용 문제가 아니고 형식 문제다.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말을 알아들었다. 그러더니 요새 교회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임직예배도 있다.

2. 기도조

▶ 이게(개인화) 되고 난 뒤에 일어난 성경의 전도운동 방법이다. 응답 받을 사람들이, 혹은 응답 받은 사람들이 교회 살리는 기도조를 형성한 것이다. 개인화가 되어진 사람들이 기도조가 형성된 것이다. 일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놓치고 있는 것이다. 안 된다는 것은 없다. 못 봤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못 본 것이다. 성경에는 이걸 잘 했다.

(1) 행2:42-47
▶ 그것이 행2:42-47절이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전도제자를 불렀을 때 뭘 가르쳐야 할 것인지 답이 나왔다. 매일 찾아가라는 말이 아니다.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행6:1-7
▶ 이러니까 교회가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게 행6장이다. 그러니까 일꾼, 중직자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행9:1-43
▶ 그러니까 저절로 온 지역으로 막 문이 열린다.

(4) 행28:30-31

▶행28:30-31절에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고 했다.
 ▶자, 이렇게 될 때 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난다. 그리고 개인화가 되어진 만큼 불평불만이 없어진다. 개인화가 안 되면 불평불만이 자꾸 생긴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못 잡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인화가 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교회가 살아난다. 개인화 안 된 사람이 모이면 헛소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개인화 된 사람이 모이면 이렇게 된다.

3.oneness

▶이렇게 될 때 흑암을 완전히 이기는 원네스가 나오는 것이다.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원네스 왜야만 흑암세력을 이긴다.

(1)빌3:14-20

▶대표적인 예로 빌3:14-20절에 설명이 나온다. 이 부분이 뭐가? 흑암이 다른 것 있는가? 이게 흑암이다. 문제에 인본주의를 쓰고 자꾸 싸우고 그렇게 된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2)롬16:17-20

▶특히 롬16:17-20절이다. 막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나온다.

(3)골4:1-8

▶그리고 골4:1-8절, 이렇게 원네스의 응답들이 오기 시작한다.

▶각인-영적(근본), 그릇-기본, 현실-기초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 항상 개인을 개인화 시킬 때 세 가지를 참고해야 한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각인된 게 있다. 자기도 모르게 각인된 게 있다. 이걸 우리가 참고하면서 들 개인화를 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릇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현실이 있다. 이걸 어찌서 참고 안 하겠는가? 각인된 것을 보고 우리는 영적 부분을 보는 것이다. 이걸 보고 근본문제라고 한다. 그릇을 보고는 기본이라고 한다. 현실을 보고는 기초라고 한다. 꼭 참고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슬슬 하시면 작은 사역이라도 굉장히 열매는 크게 나온다. 교인들과 같이 가는척하면서, 같이 가야 하니 어떡하는가? 같이 가는척하면서 이런 일꾼들을 자꾸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직자분들은 같이 가는척하면서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어찌면 나이 많은 분들은 못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축복은 보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제가, 네가 아직 다락방 안 해봤다고 한 말은 개인화가 안 됐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가서도 여러분이 초점을 뒀어야 한다. 시작을 제대로 못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꺾테기로 하니까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다락방답게 시작을 해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시작을 잘 못해놓고는 자꾸 안 된다느니 된다느니 이런 소리를 한다. 그래서 진짜로 말씀을 붙잡고 시작을 제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미국 집회나 캠프도 포인트를 이쪽(시작)에 뒀어야 한다. 시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시작을 제대로 해야 한다. 아마 이걸 미국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시작을 제대로 하면 분명히 열매가 나오게 되어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작을 틀리게 해버리면 열심히 한 만큼 손해다. 그래서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슬슬 교인들과 같이 가면서 이렇게 살살 하라. 빨리 못 알아들으면 기다리면서 살살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머지 것은 착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나? 우리는 목표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 나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나쁜 것이지만 우리는 동기를 이것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 교회에서 살급살급 한명씩 나온다. 어떨 때는 이걸 이용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환자가 왔을 때 누굴 붙이는 것이다. 그래서 나올 때까지 미션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개인화가 저절로 되는 것이다. 같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 안 했는데도 응답을 받으면 올바르게 기도조가 형성된다. 이걸 올바른 기도조를 말한다. 개인화가 안 되어서 따라다니는 사람은 올바른 기도조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들이 올해는 꼭 실현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반드시 주의 일을 실현시키게 해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게 해주옵소서. 전도운동이 실현되는 시간표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 end)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넷총국	
① http://www.jcking.net ② http://www.rutc.com	
총 국 장:	김성호 목사 (☎011-505-5684)
실무국장:	차동호 목사 (☎010-5375-9383 ✉3759383@paran.com)
후원계좌: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총국)